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 어린이날 101주년 기념 공동행동”

## 기자회견문

올해는 어린이해방선언을 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어린이날 101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22년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인격체인 어린 이들을 존중하기 위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고 어린이의 날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23년 5월 1일에는 어린이들을 과거의 낡은 윤리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 등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여러 소년단체들이 연합하여 조선소년운동협회를 만들고 전세계에서 최초로 어린이해방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뒤 어린이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어린이해방선언은 100년이 지난 지금, 과연 100년 전의 선언의 취지에 맞게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해방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안타까움을 갖게 합니다.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지표보고서를 보면 2021년 자살로 사망한 0~17세 어린이는 인구 10만 명당 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6년 전인 2015년(1.4명)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특히 12~14세의 자살률은 2020년 3.2명에서 2021년 5.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아동학대 피해도 크게 늘었습니다. 2021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 명당 502.2명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2020년(401.6명)보다 100명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만 15세)의 삶의 만족도는 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0개국 가운데 거의 최하위에 해당하는 26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5년간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했지만 지난해의 국내 출산율은 최저 수준인 0.78로 우리 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표들은 모두 어린이를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자체의 유지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을 맞아 국회, 교육청, 교육단체, 교사양성기관, 어린이문화단체들은 최근의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어린이해방을 위해 그동안 어른들의 부족한 노력을 반성하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린이해방을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같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 어린이날 101주년을 기념하면서 5월을 앞두고 올바른 어린이해방을 위해 교육관련 단체와 기관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아래 내용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첫째,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해줍니다. 어린이에게 존대를 하며, 어린이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우리 사회의 주인공으로 시민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같이 노력합니다.

둘째, 가난해서 굶거나,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거나, 누구에게든 학대나 폭행을 당하거나 하는 어린이가 단 한 명도 없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나서서 같이 노력합니다.

셋째, 과도한 경쟁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즐겁게 놀며,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올바른 교육제도와 성장환경을 같이 만들어갑니다.

넷째, 우리 어린이들이 깨끗한 지구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통일된 나라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모든 어른들이 책임감을 갖고 행동에 나섭니다.

우리 ‘공동행동’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전세계에서 최초로 어린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이들을 윤리적 압박, 경제적 압박, 그 외 각종 압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1923년의 선언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나아가 앞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더욱 인간답게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5일

##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 어린이날 101주년 기념 공동행동

상임대표 : 도종환 국회의원

이주영 어린이문화연대 대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공동대표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대표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종우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이혁규 청주교육대학교 총장

장정희 (사)방정환연구소 이사장

방지영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이사장

김인숙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이사장

유애순 한국동화스피치협회 회장  
정진아 한국동시문학회 회장  
방동주 한국국제스토리텔러협회 회장  
이은주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김영미 어린이책시민연대 대표  
박상재 (사)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사장

